

##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 LG 정보통신

GINs사업부 LG텔레콤으로 이관  
LG정보통신의 PC통신 서비스인 GINs가 LG텔레콤으로 이관됐다. LG정보통신은 그간 운영해오던 GINs사업을 LG텔레콤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아래 이달초 관련 인력 20여명을 LG텔레콤으로 재배치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그러나 GINs 서비스 운영인력과 시스템은 대금회수 계약 등을 고려, 오는 3월쯤 LG텔레콤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번 GINs 사업부 이관은 그동안 부진했던 PC통신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PCS 부문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GINs 사업부를 이관받는 LG텔레콤측은 무선 온라인 서비스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이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GINs 서비스는 입찰정보 등 4개의 전문 DB와 50여개의 DB를 제공하고 있다.

### 데이콤

美 사이버캐시사와 합작법인설립  
데이콤이 인터넷 전자화폐의 대명사로 알려진 미국 사이버캐시사와 합작법을 설립한다. 데이콤은 지난 1월 9일 미국 사이버캐시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설립될 이 합작법인은 사이버캐시사의 '사이버코인', '전자화폐/수표서비스' 등의 전자지불 서비스와 데이콤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본격적인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데이콤이 사이버캐시사로부터 도입하는 사이버코인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www.cybercash.com)을 통해 제공, 인기를 끌고 있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수수료 없이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콤은 이용자들이 은행이나 카드 계좌의 일정금액을 전자화폐로 교환한후 가상상점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데이콤

의 운영게이트웨이를 통해 거래은행을 연결, 거래가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 가능으로 송신자 확인이 가능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사이버캐시사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이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용 결제 소프트웨어인 사이버캐시월렛(지갑)은 2백만명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 삼성데이터시스템

#### 2005년 세계 10위 IT업체로 발돋움

삼성데이터시스템은 오는 2005년까지 '21세기 장비기술 혁명을 통한 네트워킹사회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2005년 비전과 중장기 전략인 '드림 21'을 발표했다.

삼성데이터시스템은 오는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정보시스템(IT)서비스 업체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아래 2005년에는 매출 10조 원, 평균 성장률 38%, 이익 5천억 원, 인력 2만명, 세계 수준 명품 5개 이상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할 방침이라고 지난 1월 7일 밝혔다.

SDS는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서비스 인터그레이터'를 미래비전으로 삼고 고객 경쟁력의 초일류화, 지식 사회의 정보인재 양성, 생활속의 정보문화 구현으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잡았다.

SDS는 또 기존 사업분야를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통합 사업군인 솔루션 서비스, 컨설팅 사업과 교육 사업군인 지식서비

스, 통신네트워크, 인터넷, PC통신 등의 정보유통 사업군인 커뮤니티케이션 서비스 등 세가지 서비스군으로 분류, 각 부문의 명확한 개념 정리와 함께 조직의 능률화를 꾀하기로 했다. SDS는 특히 현재의 수주 개발형 SI사업에서 2000년에는 ERP형 솔루션 통합사업으로 전환하고 2005년에는 명실상부한 컴퍼넌트형 서비스 통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솔루션 통합 사업으로 정했으며 인터넷/인트라넷, 전자상거래, 차세대 통신사업, 모험사업을 신규 기반 사업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2000년에는 그룹내·외의 사업비중을 50:50으로 잡고 해외 사업비중을 30%대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해외 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 CTE사와 공동으로 CSP(캠브리지 삼성 파트너쉽)를 세우기로 했다. CSP는 앞으로 인터넷 관련 핵심정보기술의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 인터넷사업의 선진화를 꾀하고 벤처 비즈니스를 조기에 발굴, 삼성의 글로벌판매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 한국통신

### 인터넷 국제전화 증설

한국통신이 국제회선을 증설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고속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통신은 인터넷 국제회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ISDN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T2(6Mbps)급 1회선을 추가 증설했다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한미간에 모두 15Mbps규모의 회선을 운용하게 됐다. 한국통신은 또 내년 4월까지 한미간에 T3(45Mbps)급 국제 회선 증설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일본을 비롯, 아태지역

의 주변국과 한국인터넷교환센터(KIX)간 직접접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KIX를 아태지역의 중심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통신은 국내 백분망 형성을 위해 01410 지역 접속점을 15개 지역에서 41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도시간 전송속도도 45M 5개 구간에서 8개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9백 13회선이던 중계회선을 3천2백48회선으로 늘렸다.

## LG-EDS 시스템

### 공공SI시장 선두주자 자리매김

LG그룹 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인 LG-EDS시스템이 지난 1월 14일 창립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LG-EDS시스템은 창립 10주년과 관련해 지난 1월 14일 여의도 트윈타워빌딩에서 기념식을 갖고 제2기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범수사장은 "10주년을 맞아 제2창업의 각오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자"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발굴 육성과 최고수준의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LG-EDS시스템은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그룹의 시장과 공공SI시장을 집중 공략, 지난해보다 36% 성장한 4천2백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기로 했다. 사실 LG-EDS는 지난해 공공SI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당초 98년까지 공공 SI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대법원 등기업무전산화, 한국통신 고객센터 통합시스템, 과천시 도시정보시스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서울시 재난구조 구급정

보시스템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공공부문에서 1백46%의 매출 성장율을 기록, 이 분야 1위 업체로 부상한 것이다. LG-EDS시스템은 올해는 특히 공공SI시장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이 분야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개설한 중국 북경 현지 사무소에 이어 미국, 영국, 동남아 등 지역에도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신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합작사인 EDS의 선진기술과 경험을 내재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매출 4조원을 달성, 세계적인 시스템 통합업체로 부상한다는 것이 LG-EDS의 야심찬 장기 전략이다.

## 대우통신

### 중국에 광케이블 합작사 설립

대우통신이 중국에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현지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대우통신은 최근 강소성의 통신케이블 생산업체인 금성특종전람창과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합작회사인 '무석대우전람유한공사' 설립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강소성 무석시에 설립되는 무석대우전람유한공사에 대우통신은 총 자본금의 56%에 해당하는 5백만달러의 지분을 투자하고 향후 3년 이내에 광케이블 생산설비 등에 총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월말부터 본격 가동된 이 합작회사는 대우통신으로부터 광케이블 원자재인 광섬유를 공급받아 중국내에서 소요되는 광케이블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